

독도의 진실-6

- 『강계고』와 우산도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1. 『강계고』 「강계지」 제5권에 나오는 독도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지리학을 대성시킨 신경준(申景濬 : 1712-1781)이 저술한 『강계고』 「강계지」 제5권(1756)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여지지 왈,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 그러나 여러 도지(圖志)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 하나는 소위 송도이고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인 것이다. (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 本一島 而考諸圖志 二島也 一則其所謂松島 而蓋二島 俱是于山國也)



『강계고』 「강계지」 제5권

그런데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에는 비슷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增補文獻備考 卷三十一

至 成宗二年有告別三峯島者乃遣朴元宗往見之因風濤不
 得到而還同行一船泊鬱陵島只取大竹大鯪魚回啓云島中無
 居民矣 輿地志云鬱陵于山皆于山
 國地于山則倭所謂松島也 光海七年倭差船一隻謂將
 探礮竹島形止且曰島在慶尙江原之間朝廷惡其猥越不許接
 待只令東萊府使朴慶業答書曰足下非不知此島之橫占乃欲
 攙越窺覘是誠何心恐非鄰好之道所謂礮竹島實我國之鬱陵
 島也介於慶尙江原海洋載在輿地焉可誣也蓋自羅麗以來取
 考方物逮至我朝屢刷逃民今雖廢棄豈可容他人冒居乎他日
 復書 今以前日復書之說觀
 之前已有所往復也 已悉梗槩貴島宜罷然改圖而今來
 直以解纜發船爲言不幾於輕朝廷而味道理乎貴島於我國往

여지지가 말하기를,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
 도다. (송도=독도)

『강계고』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한 섬'이라고 기
 술한 내용을 정정한다는 의미가 있어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강계고』의 기록 중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이라는 부분은 『여지지』가 『신증동국여
 지승람』에서 인용한 부분이고 『강계고』는 그 부분도 『여지지』에서의 인용문으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한 섬'이라고 기술한 문헌은 『여지지』가 아니라 『신증동
 국여지승람』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강계고』는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했으나 『여지지』(=동국여지지 : 1656)의
 울릉도, 우산도 부분을 비롯해 대부분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원본확인 불가능하
 다.

그러나 『여지지』를 인용한 『강계고』의 기록이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

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으로 계승되었다.

결국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한 섬’ 설은 1656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의해 ‘두 섬’설로 명확히 정정된 것이다.

2. 일본 측 왜곡논리

일본 측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등에 나오는 ‘여지지가 말하기를 (중략)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라는 문장에 대해 비판한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송도, 즉 독도라고 확실히 기록한 한국 측 문헌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비판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껴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라는 문장이 신경준이 날조한 문장이라고 왜곡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 측 논리를 비판하기 위해 먼저 일본 측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 대 교수의 논리)

(1)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주기에 있는 말, 즉 ‘『여지지(輿地志)』가 말하기를,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는 문장의 출처로 기록되어 있는 『여지지(輿地志)』는 유성원(柳聲遠)이 1656년에 편찬한 문헌이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여지지』가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인용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동국문헌비고』가 『여지지』라기보다 다른 책을 인용하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 『영조실록』 영조46년 윤5월16일조 :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근거가 된 구절은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疆界考)』에 있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편

찬도 신경준 자체가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유성원(柳聲遠)의 『여지지』는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疆界考)』에 인용되었고, 그것이 다시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에 인용된 것이다. 그런데 『강계고』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여지지가 말하기를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 그러나 여러 도지(圖志)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 하나는 소위 송도(=독도)이고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인 것이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는, “여지지가 말하기를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인용되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강계고』에는 “여지지가 말하기를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이라고 먼저 적혀 있고 이 부분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는 생략했다.

신경준은 원래 『여지지』에서의 인용문인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자신의 사적 견해, 즉 “여러 도지(圖志)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라는 말을 마치 『여지지』의 원문인 것처럼 둔갑시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 적어놓았다.

(3) 한국에서 우산도가 송도(=독도)이고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신경준의 날조에서 비롯했다. 즉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출처 : 『죽도, 그 역사와 영토문제(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下條正男, 2005)]

3. 일본 측 왜곡논리 극복

『강계고』(1756)의 문장을 해석할 때 시모조 교수는 『여지지』로부터의 인용문

부분을 <여지지가 말하기를,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까지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한문인 원문에는 십표나 마침표 같은 것이 없고 문장전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지지가 말하기를,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에 이어지는 문장인 <그러나 여러 도지(圖誌)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 하나는 바로 소위 송도(松島)이고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인 것이다>라는 부분도 『여지지』로부터의 인용문의 가능성이 높고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는 이 문장을 인용해 정리했다. 시모조 교수가 단정한 것처럼 후자의 문장이 신경준의 날조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시모조류 단정에 의한 왜곡일 뿐이다. 한국학자들과 일본의 일부학자들은 시모조류의 이런 왜곡수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왜 『동국문헌비고』 등 세 권의 책은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이라는 부분을 생략한 것일까? 사실 이 문장은 『여지지』로부터의 인용문이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로부터의 인용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국문헌비고』 등은 확실한 『여지지』로부터의 인용문만을 정리해서 기술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이야말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시모조 교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억지 다정에 불과하므로 성립될 수 없다.